

1415년 헨리 5세의 원정을 계기로 영국은 일시적인 약탈에서 군사적 점령이라는 전략으로 선회했고, 그에 따라 노르망디에 대한 영국의 점령과 지배가 시작되었다. 외국의 지배라는 이 새로운 상황은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했거니와, 그중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노르망디의 주민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백년전쟁은 두 민족 간의 전쟁은 아니었지만 전쟁 기간 중에, 특히 전쟁 후반기에 민족의식이 각성되었다고 논의된다. 1871년 보불전쟁에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에 몇몇 프랑스 학자들은 알사스-로렌의 상실을 중세의 노르망디 점령에 비유했다. 반면 영국 학자들은 점령된 노르망디에서의 영국 통치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부각시키고 주민들의 저항운동을 경시했다. 이러한 견해차는 점령당국에 의해 작성된 행정문서들이 오직 치안유지라는 관점에서 정치적 범죄와 단순한 반사회적 행위를 엄밀히 구별하지 않고 기록되었다는 것에 주로 기인한다.

이 사료의 해석에서 관건이 되는 문제는 문서들에 등장하는 ‘brigands’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점이다. 일찍이 르페브르-퐁탈리스(Lefèvre-Pontalis)는 문서상의 ‘brigands’과 그 유사용어들을 숲속에 은신한 게릴라, 파르티잔으로 해석했다. 반면, 영국 역사가인 로우(Benedicta Rowe)는 영국의 점령 이전부터 부르고뉴파와 아르마냐파의 투쟁으로 분열된 프랑스 북부에는 도적떼가 기승을 부렸다고 지적하며 앞의 해석을 비판했다. 그들은 농민들을 약탈하는 이 두 당파의 군대에 대해 게릴라전쟁을 벌이며 평온한 농민의 삶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주에(R. Jouet)는 이러한 견해를 다시 반박했다. 점령 이전에도 ‘brigands’으로 언급된 사례가 있긴 했으나 그 수가 적고 우발적인 데 비해 1418년 이후로는 노르망디 전역에서 그렇게 언급되는 사례와 처형자들이 더 많이 그리고 꾸준히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는 열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brigands’이라는 말을 부연하는 다양한 지칭들이고(‘도적’, ‘강도’, ‘반역자’, ‘국왕의 적’ 등), 또 하나는 처형된 자들의 재산을 처분한 방식이며(흉악범은 처형 후 동산과 부동산의 연수입이 몰수되었지만, 반란범은 부동산이 국왕에 의해 몰수되었다), 세 번째 열쇠는 처형방식의 차이이다(전자는 교수나 참수되었지만, 후자는 참수 후 효수되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을 적용한다고 해도 위의 학자들은 문서상의 ‘brigands’이 단순한 도적인지, 저항 가담자인지, 아니면 전쟁 포로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며, 그래서 ‘brigands’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교착상태로 남아있다. 결국 우리는 이런 논쟁을 떠나 점령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의 실상을 살펴보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에 앞서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의 ‘사회적 도적(Social Bandit)’에 관한 논의는 우리의 주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주로 농민 출신으로 도망 농노이거나 몰락한 자유민 농민이며, 농민 사회의 가치관을 공유한다. 그들은 반사회적 범죄자와 달리 권력의 억압에 맞서 동료 농민들을 대변하거나 그들을 위해 복수하거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영웅으로 여겨진다.

주에의 논의에 따르면, 노르망디 점령당국에 대한 저항운동을 촉발한 주된 원인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영국 군인들의 무분별한 약탈이었다. 하지만 이 ‘brigands’은 평화의 희망이

샤를 7세의 승리에 달려있다고 믿게 됨에 따라 점점 더 발루아조 편으로 기울어갔다. 이들의 출신 배경은 'brigands'으로 처형된 자들(295명의 기록)에 대한 주에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먼저, 지리적으로 볼 때, 대다수가 인근 지역 출신이었다.(표 1) 만약 이들이 그저 약탈을 위해 집을 떠난 단순한 도적이었다면 이들은 되도록 고향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는 먼 곳에서 활동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는 그들의 활동이 인근 주민들에 의해 용인·방조되거나 심지어 동조·지지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영국군 수비대와 인접한 곳일수록 'brigands'의 수도 많았는데(표 2), 이는 영국 군인들이 지역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했고,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적대행위를 유발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사회계층으로 볼 때, 'brigands' 가운데 귀족은 거의 없었으며, 도시민의 수도 극소수였고, 압도적인 다수는 농촌 출신이었다. 주에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농민 출신으로 그들의 고향 마을 인근에서 동료 농민들의 목인 또는 지원 속에 활동했다. 요컨대 이 'brigands'은 홉스봄이 말한 '사회적 도적', 특히 그가 언급한바 오스만 제국에서 활약한 슬라브인 기독교도 'haiduk'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노르망디 주민들의 저항운동에 관한 이상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이 지방에서의 민족의식의 성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일반적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일단 점령국 영국의 장악력이 느슨해지자 성직자, 도시민, 농민들 사이에 영국의 지배를 타도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움직임들이 반드시 어떤 애국적 동기나 샤를 7세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움직임을 추동한 사람들 사이에는 발루아조 국왕과 그의 권력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이를 자신들과 동일시하는 뿌리 깊은 충성의 감정이 있었다. 1429년에 영국군에 포위된 오를레앙을 구원한 잔다르크는 발루아가에 대한 민중들의 이 희미한 충성심과 자신들을 발루아 당파와 동일시하려는 경향의 두드러진 표현이었다. 잔다르크는 이와 같은 민중 의식의 큰 흐름에 의해 지지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